

딜리팀의 뜨거운 10월 보고서



베르타(슬이)
핑가스(유림)
시코(성한)
까를로스(정진)

Timor-Leste 소개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와 호주 사이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이다.

동티모르의 총 면적은 강원도 크기만한데 딜리팀이 위치한 **Dili**는 동티모르 전체 면적의 **2.46%** 정도를 차지한다.

동티모르의 수도인 이곳 딜리에는 **약 27만 여명**이 살고 있고 이는 동티모르 전체 인구의 약 1/5에 해당하는 인구 수이다.

동티모르는 **21세기 최초의 신생독립국**이다. 동티모르는 1524년부터 1975년까지 450년간 **포르투갈**의 지배를 당했는데 제2차 세계대전 때 4년간 **일본** (1942~1945)의 지배를 당하기도 했다. 그리고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하자마자 **인도네시아**에 강점 당해 27번째주(티모르티무르주)로서 24년간(1975~1999) 식민지배를 당했다.

Timor Loro Sa'e(해 뜨는 나라, 공식명 Timor-Leste)는 **2002년 5월 20일** 수백 년에 걸친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하였다. 하여 티모르엔 독립기념일이 여러 날인 웃지 못할 사연이 있다.



Timor-Leste 소개

동티모르의 공식언어는 **포르투갈어**와 **테툼어**이다. 수도 딜리에서는 테툼어가 통용되지만 지방으로 가면 아예 의사소통이 안 될 만큼 **다양한 언어**(약 32개)가 존재하고 있다. 테툼어의 어휘는 다소 한정적이라 포르투갈어나 인도네시아어에서 빌려온 단어들 많다.

테툼어가 한 나라의 공식언어로서는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포르투갈어를 정부, 학교 등에서 공식어로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로 **포르투갈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한다. 인도네시아의 식민 지배와 경제적 영향력으로 현지에는 **인도네시아어**(바하사)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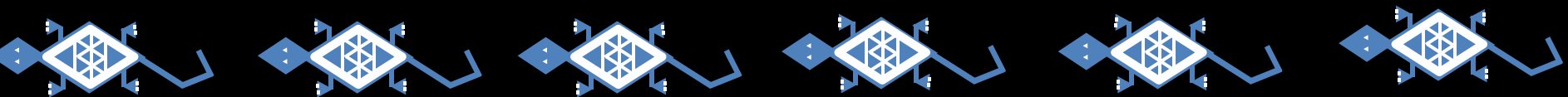
동티모르의 정치체제는 **민주공화국**이며 경제체제는 **시장경제**이다. 통화는 미국달러와 현지화 동전을 사용하고 있고 1인당 GDP는 USD 4669달러(2014년)이다.



동티모르의 전체 수출량은 3천4백만달러(2012년)인데 반해 수입량은 6억7천만달러(2012년)에 달한다. 2차 산업이 거의 전무하기에 연료와 함께 거의 모든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티모르의 주요 수출품은 **커피**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농업생산량은 매우 떨어져 국가산업구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4%대에 불과**하다.

포르투갈 식민지배의 영향 탓인지 **국민의 98%가 가톨릭** 신자인 특징이 있다.



Carlos ; 안정진



- 나카를로스: Nakar(망나니)+Carlos
- 딜리 바보
- 테라산타 일진
- 영어교실 성황으로 몹시 거만해짐 (“오늘 아주 콘서트였지~”와 같은 망언 남발...)
- Badinas-teen(부지런쟁이) : 매일 아침 7시, 오후 4시 축구 트레이닝에 참여중 (센터 도보이동)



Mingas ; 남유림

- 두목, 아이무틴 깡패, 꼴티모르 사장, 남엄마 (깡패성향 다분함)
- 인격부자 (팀원이 여러명인 착각을 유발하여 당황시킴)
- 두 달째 주 2~3회 신메뉴를 보이고 있는 요리왕
- 아직 버거킹을 먹지 “못”했음(버거킹 10개 예약)
- 동물 성애자(소, 염소, 개, 돼지, 닭, 고양이, 도마뱀, 쥐, 원숭이 등등)





Francisco ; 송성한



- 시월의 ★리다★
- 하루에 1년씩 늙음, Bibi(염소) 비주얼의 소유자(턱수염깎길바라)
- 테라산타 여자아이들의 화두의 인물
시코 보니뚜(시코는 잘생겼어) vs 시코 오잉 아뜨(시코 얼굴 망가졌어)
- 1일 1맥주와 라디오는 필수
- 설거지 담당 (오늘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Berta ; 구슬이



Deit berta mesak la haris, sempre haan
(Only berta alone does't wash, always eat)

- 10월의 병자... 아토피로 아이무뎌(숙소)에 몇주째 고립중
TT
- 영유아바라기, 영유아성애자, 요새 만두(아기고양이)성애
자로 둔갑
- 테라산타(센터)를 못 가서 요즘 옆집꼬마 아니쥬, 아대니를
대상으로 미니 아띠클라쎬 개강



Manas Kolega



YMCA Timor-Leste, 테라산타 센터 식구



우리들의 영원한 xefi
오라시오 수총장님



아띠클라씨 정신적 지주
마나 우디스



백수삼촌같은 친근함
마운 제로(니모)



예비 아마(엄마)
마나 빠티



아띠들의 떼똘어 선생님
마나 페리

Outubru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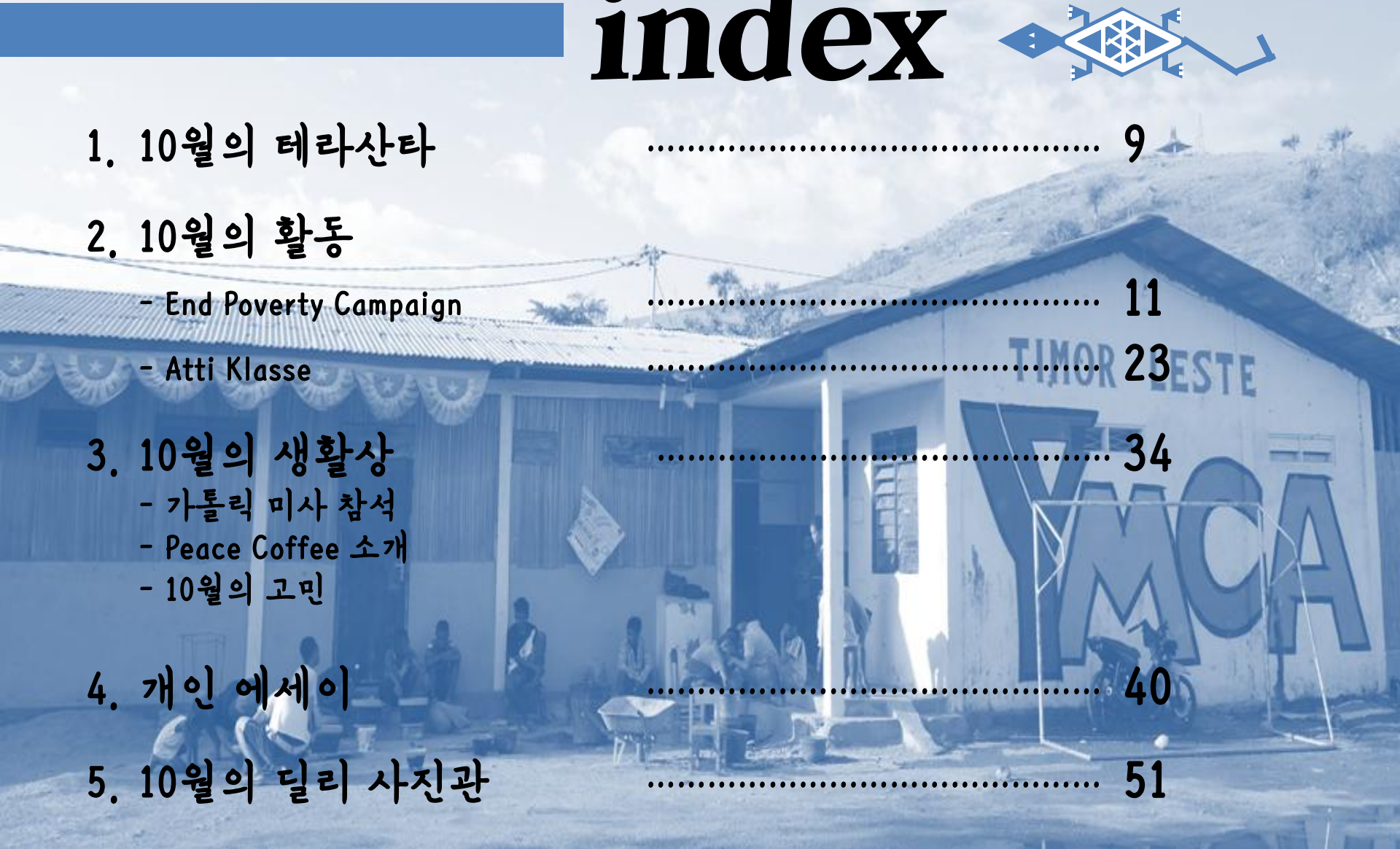
Segunda	Tersa	Kuarta	Kinta	Sesta	Sabadu	Domingu
9/29	30	10/1	2 ← 아띠클라씨 홍보 →	3	4	5 축구부와 소풍
6	7 아띠클라씨 시작! (매주 월~금 오전, 오후)	8	9 캠페인 준비 (모래 운반)	10 캠페인 준비 (샘플만들기)	11	12
13	14	15 캠페인 준비 (화분만들기)	16	17 End Poverty day	18 캠페인 진행 (in peace coffee)	19 성당축제, 만두 온 날
20 캠페인 진행 (in peace coffee)	21	22 캠페인 진행 (in Terrasanta)	23	24	25	26
27	28	29 캠페인 평가 모임 (점심회식 with 마을청년)	30	31 '피스커피' 커피 운반	11/1 조디 간사님들과 함께 산타크루즈 성묘	2 전 오라시오 총장님댁에서식사 (티모르 명절)



index



1. 10월의 테라산타	9
2. 10월의 활동	
- End Poverty Campaign	11
- Atti Klasse	23
3. 10월의 생활상	34
- 가톨릭 미사 참석	
- Peace Coffee 소개	
- 10월의 고민	
4. 개인 에세이	40
5. 10월의 딜리 사진관	51



Adeus Xefi Orasio...π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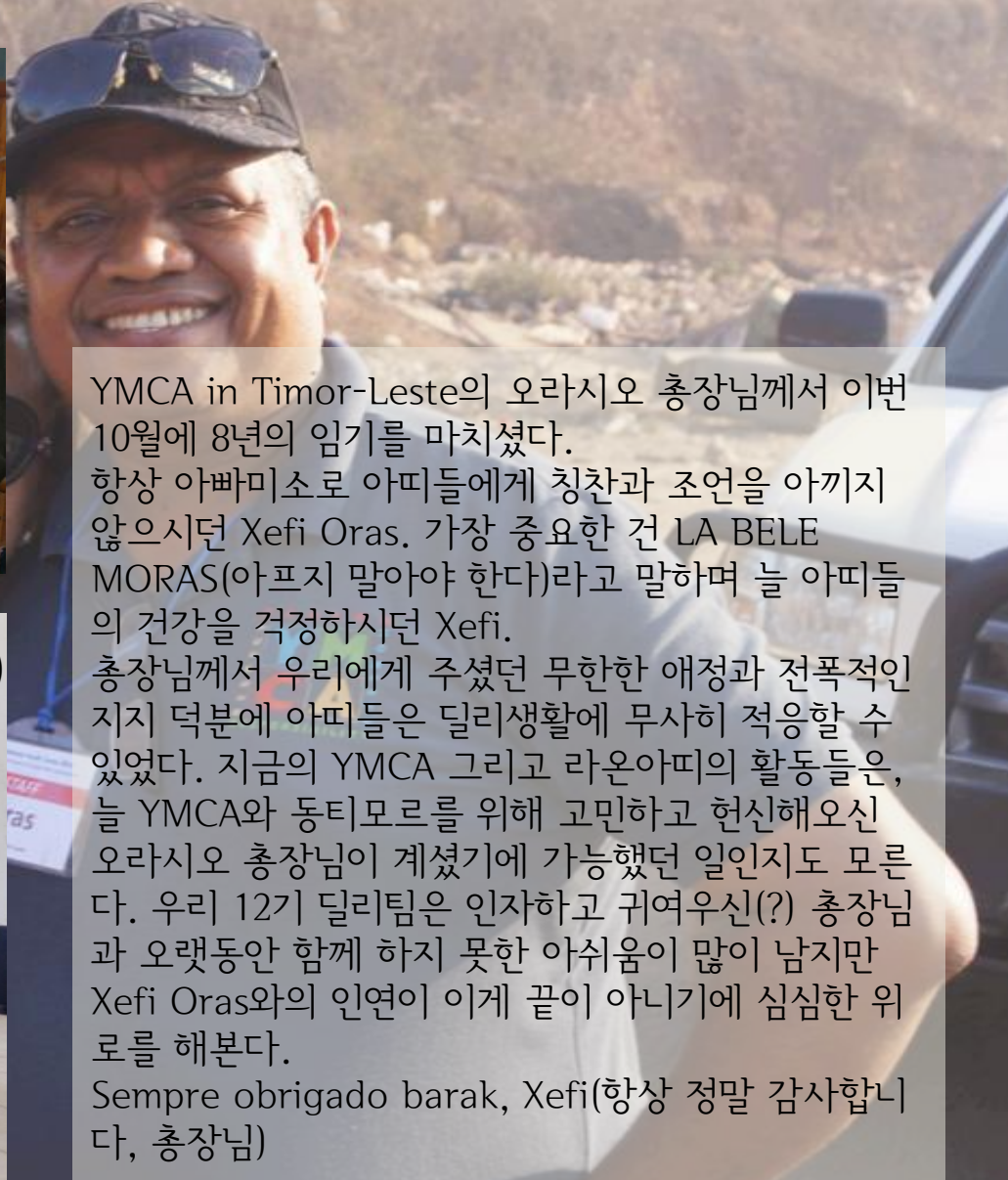
회의 때마다 항상 아빠미소로

아띠들에게 칭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던 총장님



테라산타 유일의 Bokur(fat) _ (<
Maibe(but) 최강 귀요미 Xefi♡



YMCA in Timor-Leste의 오라시오 총장님께서 이번 10월에 8년의 임기를 마치셨다.

항상 아빠미소로 아띠들에게 칭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던 Xefi Oras. 가장 중요한 건 LA BELE MORAS(아프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늘 아띠들의 건강을 걱정하시던 Xefi.

총장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무한한 애정과 전폭적인 지지 덕분에 아띠들은 딜리생활에 무사히 적응할 수 있었다. 지금의 YMCA 그리고 라온아띠의 활동들은, 늘 YMCA와 동티모르를 위해 고민하고 헌신해오신 오라시오 총장님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일인지도 모른다. 우리 12기 딜리팀은 인자하고 귀여우신(?) 총장님과 오랫동안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Xefi Oras와의 인연이 이제 끝이 아니기에 심심한 위로를 해본다.

Sempre obrigado barak, Xefi(항상 정말 감사합니다, 총장님)

Adeus Terra Santa 운동장...ㅠ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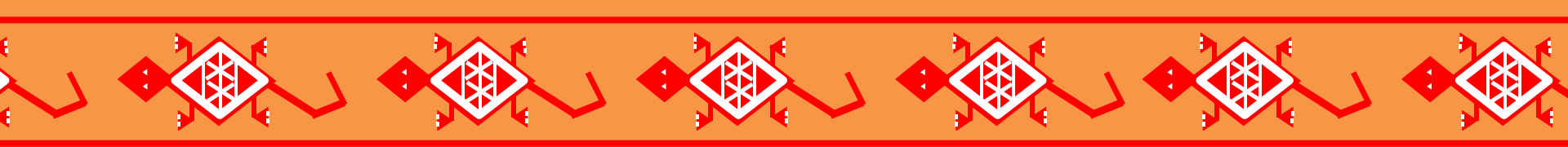
라운아띠 12기 딜리팀이 활동하는 YMCA in Timor-Leste의 센터는 딜리 외곽의 Terra-Santa라는 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센터 앞에는 넓은 운동장이 하나 있는데 축구를 사랑하는 동티모르의 청년과 아이들이 맘껏 뛰놀고 공을 찰 수 있는 테라산타의 심장같은 곳이다. 딜리팀이 센터에서 활동을 막 시작할 무렵 우리는 이 운동장에 호텔이 생긴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넓은 운동장에, 매일같이 아이들이 축구를 하느라 정신 없는 이 운동장에 호텔이 생긴다니...! 우리는 믿을 수 없었다.



이 운동장을 기점으로 테라산타는 위쪽, 아래쪽으로 마을이 나뉘어지는데 이 호텔 공사건에 대해 윗마을, 아랫마을의 의견이 갈렸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마당에 화분도 여럿 가꾸고 우리가 방문하면 꼭 비스킷과 커피를 대접하는 아랫마을은 호텔이 생기는걸 반대했다. 그에 반해 생활이 좀 더 궁핍해보이는 윗마을은 호텔이 생기는걸 찬성한다고 했다. 호텔이 생기면 테라산타는 분명 많은 부분에서 달라질 것이다. 아마도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번화한 지역이 될 지도 모른다.



마을의 의견이 둘로 갈려 다소의 긴장감이 보이던 조마조마한 시간도 잠시, 갑자기 땅주인이 나타났다. 호텔공사는 주민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무작정 시작되었지만 토지대장이 정확하지 않아 정확한 주소도 없는 이 나라에 대해 어디서 땅주인이 나타났는지 아띠들은 무척 의심스러워 하고 있다. 그 나저나 공사는 시작되었고... 조금씩 쌓아 올라가는 담벼락을 보며, 정말 조만간 사라질 운동장을 보며 아띠들은 깊은 고민과 상념에 빠져있다.



End poverty campaign 2014 in Timor-Leste



Lack of job,
not lack of ability

End poverty in Timor-Leste

청년들과 1차 미팅(9월21일)



딜리팀은 이번 END POVERTY CAMPAIGN을 청년들의 주도 하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방인인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캠페인이 아닌 현지 친구들과 함께하는 캠페인을 만들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첫 만남인 이번 미팅에서 라온아띠는 청년들에게 END POVERTY CAMPAIGN과 빈곤의 개념에 대해 설명했고, 청년들과 함께 토의하여 캠페인 주제와 진행 방향을 결정하였다. 회의를 통해 청년들이 고른 주제, 테라산타의 빈곤문제는 바로 '청년실업'이었다.

청년들은 청년실업 캠페인의 일환으로 화분을 직접 만들어 팔기로 했다. 일자리가 없다면 일자리를 만들어보는 재밌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청년들은 이 캠페인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을 3가지로 잡았다.

①화분을 만들어 파는 경험 공유하기 ②작은 비즈니스 체험해보기 ③함께 일하는 법 배우기

이렇게 세가지가 그들이 정한 이번 캠페인의 목적이다.

End poverty in Timor-Leste

청년들과 2차 미팅(9월22일)



청년들과의 2차 모임에서는 크게 3가지 사항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첫 번째로 청년리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는 회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준비하는 것도 어찌보면 이 캠페인을 우리가 '주도해가는건 아닐까'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좀 더 티모르 청년들이 주도하는 캠페인을 만들기 위해선 청년리더를 뽑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 두 번째 논의는 수익금 분배에 관한 것이었다. 청년들은 수익금을 테라산타 커뮤니티를 위해 쓰기로 결정했다. 세번째 논의는 여자 청년들의 참여에 관한 것이었다. 이전 기수에게서 여자 청년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피드백을 받았고, 우리는 청년들에게 이번 캠페인에 여자청년들도 함께하자는 제의를 해보았다. 티모르의 문화관습상 여성들이 이런 사회활동을 하는게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참여에 대해서는 흔쾌히 환영하였고 그래서 청년리더는 여자청년들과의 미팅을 가진 후 최종 미팅 때 선출하기로 했다. 13

End poverty in Timor-Les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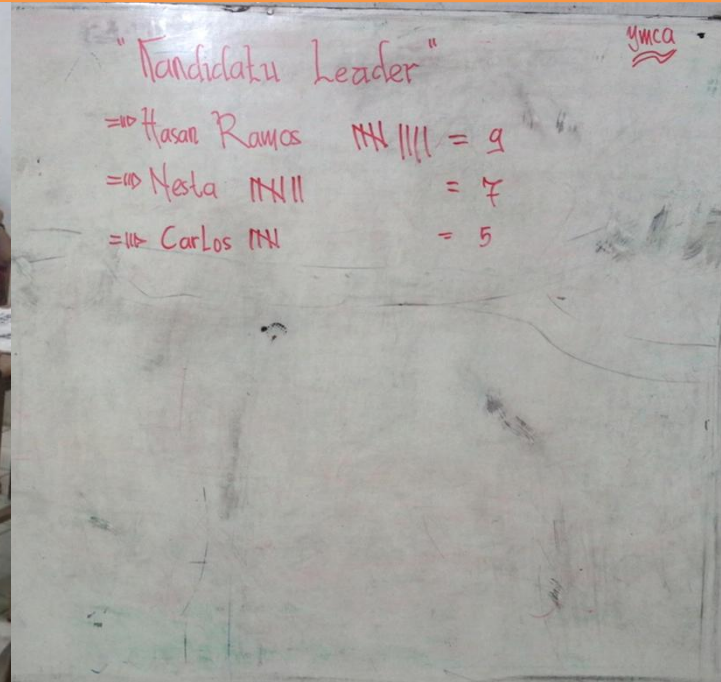
여성청년들과 3차 미팅(9월26일)



테라산타 주변에 살고 있는 여자 청년들과 미팅을 진행하였다. End poverty Campaign에 대해 설명하고, 빈곤에 대한 여자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았다. 미팅에 모인 여자청년들의 나이대가 어려서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고 회의의 결론이 남자 청년들의 일을 돕자는 방향으로 흘러서 아쉬움이 남지만 여자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자 청년들과 함께 캠페인을 준비해나갈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End poverty in Timor-Leste

최종미팅(10월2일)



최종 미팅에서는 여자 청년들과 남자 청년들이 모두 함께했다. 청년 대표를 투표를 통해 정하였다. Hasan이라는 청년이 청년 대표가 되었고, 그가 회의를 진행했다. 아미들은 이 날 거의 하는 것 없이(?) 청년들의 회의를 지켜보면서 같은 참가자의 입장으로 임했는데, 우리가 많이 관여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회의를 잘 이끌어나가는 티모르 친구들을 보며 한편으로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이 날 회의에서는 화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과정에 대해 얘기를 해보고 필요한 재료와 예산에 대해 얘기한 후, 무슨 요일에 모일 것인지, 누가 몇 시에 올 것인지를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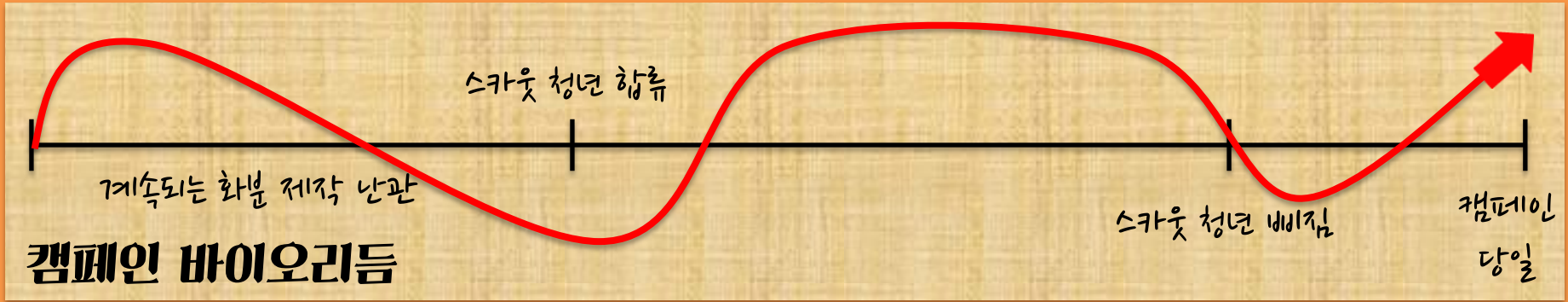
End poverty in Timor-Leste

화분 만들기(10월 9~17일)



End poverty in Timor-Leste

고난의 순간도 있었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만든 걸!!

캠페인이 시작된 후 항상 즐겁고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물론 우리에게 고비도 있었다. 처음 캠페인 방법을 화분 만들기로 정할때 캠페인 리더 핫산의 역할이 절대적이였다. 그가 화분 만드는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며 친구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줄 수 있다고 했으나 막상 화분을 만들기 시작하니 뜻대로만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이와 더불어 일정취소가 몇번 있고 전체적으로 일정이 지연되자 청년들의 관심도 현저히 줄었고 아미들 또한 리더의 회신을 오매불망 기다리며 다소 무기력해진 순간이 왔다.

감사하게도 현지간사님의 도움으로 보이스카웃 청년들이 합류하게 되었고, 화분 만든 경험과 기술이 있는 스카웃청년들이 도와주어 제대로 된 화분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화분의 모양이 그럴싸해지고 일의 진행도 진척이 있자 동네청년들은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싶은 스카우트 청년들과 동네청년 사이에 약간의 알력이 있어 스카우트 청년들이 기분이 상하는 일이 생겼다. 하지만 대망의 캠페인 당일! 이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농담을 주고 받으며 즐겁게 캠페인에 임하였다.

End poverty in Timor-Leste

화분 팔기(10월18일)

이 날 우리가 판매한 화분은...?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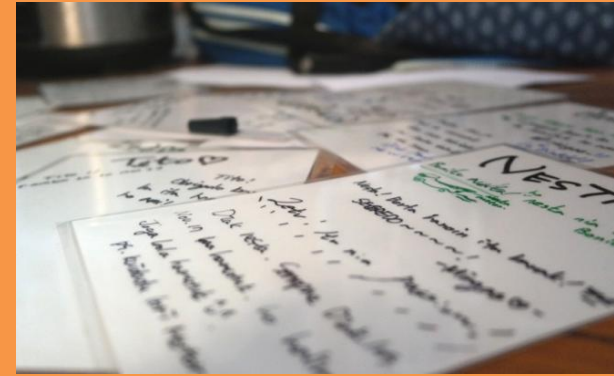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에게 End Poverty Campaign의 주제와 화분의 의미에 대해 열심히 홍보했고, 이 과정에 오기까지 모두가 수고했고 함께 해서 즐거웠기에 뿌듯하게 하루를 정리할 수 있었다.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고, 일자리 창출의 경험을 공유하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해보는 경험은 캠페인 당일이나 화분 판매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모두 캠페인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했다.



End poverty in Timor-Leste

평가 및 나눔(10월29일)



캠페인 당일행사 후 화분판매와 캠페인홍보는 몇 일 더 지속되었다.

그동안 아띠들은 캠페인 최종 평가 및 나눔의 시간을 계획했다. 남은 화분의 판매 계획 및 수입 사용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캠페인에 참여해준 청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이 날 우리는 아띠가 요리한 음식과 함께 식사를 하며 캠페인 진행과정의 사진을 모은 동영상을 시청하였고, 추가적인 회의로 판매계획 및 수입 사용처를 논의했다. 회의 결과 11월 17일 월요일 오후에 청년들과 함께 화분을 들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판매하기로 했으며 수입은 마을의 쓰레기통 구입에 사용하기로 결정됐다. 더불어 캠페인에 대한 설문 및 평가도 진행했는데 설문결과, 캠페인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지속해서 이어갈 것이냐는 문항에는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어졌다. 끝으로 캠페인 당일에 촬영했던 단체사진을 나누며 롤링페이퍼를 작성하고 11월 17일에 만날 것을 기약했다.



End poverty in Timor-Leste

개인 피드백 및 소감

SICO(성한)



돌이켜보면 캠페인 시작부터 화분을 판매하는 날까지 '도전' 아닌 순간은 없었다. 예측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길 부지기수, 특히 일자리는 아띠들의 주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캠페인 주제 1순위로 선정될 경우, 어떤 캠페인을 전개해야할까 상당히 고민스러웠던 것이었다. 그러나 직접 청년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제가 '일자리'로 잡혔고, 일자리에 관한 메시지를 담은 화분을 판매하며 캠페인을 전개해보자는 방법까지 정해졌다. 다소 당황스러웠지만 외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더욱이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에 캠페인에 대한 우리의 흥미도 높아졌다. 무엇보다 정해진 멤버가 아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캠페인이었기에 친구의 숫자만큼 애착도 커졌다. 같이 돌을 줍고,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화분을 만들고 색칠하던 순간, 피스커피 앞에서 캠페인 홍보하다 몰래 놀러가기도 했던 소소한 추억까지. (Desculpa)

딜리 청년들과 딜리팀의 End Poverty 캠페인은 '일자리 부족'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내 삶에서 빈곤은 '도전' 혹은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이제는 내 삶의 빈곤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은 알 것 같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않기. ☺

이번 엔드포버티는 우리 팀에게 '어디로 튈 지 모르는 공'과 같았다. 청년들이 주도하는 캠페인을 만들기 위해 모든 과정을 테라산타의 청년들과 함께 회의하고 정하다 보니, 우리끼리 하는 회의에서 '그럼 다음 엔드포버티 일정은 어떻게 하지?'라는 말이 나오면 '애들이랑 회의해서 정해야지. 아직은 몰라...'라는 말이 나왔다. 우리끼리 정하는 것보다 좀 더 느리고, 좀 더 그 방향이 다르게 흘러갔어도 아띠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하는 캠페인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소중한 것이다. 또한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참신한 방향으로 캠페인이 흘러가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었다.

다만 중간에 피부때문에 화분을 만들고 파는 실질적인 일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정말 아쉽다. 언니랑 오빠들이 나 대신 많이 고생해줘서 많이 미안하고, 고맙다. 또 이 캠페인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였던 '청년들'에게 정말 고맙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함께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다.

BERTA(슬이)



End poverty in Timor-Leste

개인 피드백 및 소감

MINGAS(유림)

테라산타의 End-Poverty 주제는 '일자리부족'이었지만 아띠들, 딜리팀의 End-Poverty 주제는 좀 더 광범위했다. 청년들에게 이런 캠페인 활동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그를 돕는 것, 여성청년들도 사회 활동에 함께할 수 있도록 유도해내는 것, 영어가 아닌 현지어로 모든 회의와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

도록 안팎으로 애쓰는 것 등 다소 힘이 들어갔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노력과 시도를 해본 캠페인이었다.

아직 사춘기~오춘기 무렵의 동네청년들을 데리고 캠페인을 추진해내는 일이 우리에게겐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적당히 빠져주는 것과, 이런 활동이 서툰 그들을 위해 적당히 개입하는 것 사이에서 적잖은 내적 갈등을 겪어야만 했다. 때론 우리가 너무 떠넘기는게 아닐까 하고 반성할 때도 있었고 때론 결국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유도하는게 아닐까 하는 경계를 가져야 할 때도 있었다. 함께 만들어가는 캠페인이란 생각을 일찍부터 깨달았더라면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을텐데 말이다.

이번 캠페인은 주제선정부터 캠페인방법까지 전적으로 청년들이 선정한 것이었던 만큼 청년들이 오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는 활동이었고 그만큼 진척이 더디고 다소 돌아가야만 했다. 그러나 일자리부족문제를 알리고 화분을 파는 것만이 캠페인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캠페인이라는 생각에 닿았을 때, '아직도 엔드포버티야?'라는 생각은 어느새 사라졌다. 오늘도 모이는데 기쁘고 모이자고 할 때마다 하나 둘 와주는 청년들에게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도 11월 17일에 또 한 번의 모임이 남아있지만 우리의 만남이 매년 캠페인의 순간이란 의미에서 딜리팀의 End-Poverty Campaign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CARLOS(정진)

개인적으로 엔드포버티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후보군에 두었던 주제가 여럿 있었다. 일자리 문제는 내가 가장 꺼린 주제이기도 하였다. 실제로 청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일자리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그들에게 해결이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런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캠페인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 때문이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해결책 제시가 될까?' 라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면 건방진 생각이다. 캠페인일 뿐인데 물어보기도 전에 무슨 해결책 까지 운운하며 혼자서 핑계들을 떠올렸던 말인가. 하지만 청년들이 직접 원하는 주제가 일자리 문제였고 그들과의 수차례 모임은 내 상상 이상의 적극적인 참여로 굉장히 이상적인 방향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들고 팔아보자 라는 결과까지 도달 하게 되었다. 캠페인 기획단계에 들어갔을 뿐인 시기에 한방 맞은듯, 굉장히 내 스스로에게 '내가 아직도 무언가 틀에 갇혀있구나'라는 생각과 반성을 많이 했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무언가 성과를 내기에 더 쉬운 주제를 원했던것 같기도 해서 많은 반성을 다시금 한다. 여러 곡절의 과정이 있었고 변수도 많았다. 하지만 청년들과 직접 함께 일을 했고 청년들 덕분에 우리가 캠페인을 할 수 있었다. 즉 청년들이, 내친구들이 중심이 된 캠페인이어서 너무나 고맙다. 티모르 친구들이 이끌어가는 캠페인, 정말 멋지지 않은가. 우리가 더 많이 알아서? 캠페인은 뭔가 더 거창해서? 그런 것 없이 청년들과 함께 결정하고 토론하고 실행할 수 있었던 캠페인이어서 친구들 모두에게 감사하다. 내 생각의 틀을 깰 수 있어서, 또 감사하다. 어려울 것 같아서, 복잡해 질 것 같아서, 힘들 것 같아서 라는 손쉬운 핑계들로 오히려 내가 더 두려움과 어리석음으로 가능성을 바라보지 않고 있었던건 아닐까. 아띠 친구들과 함께 배우고 티모르친구들에게도 많이 배운다. 지금, 친구가 많이 있어서 우리 모두 더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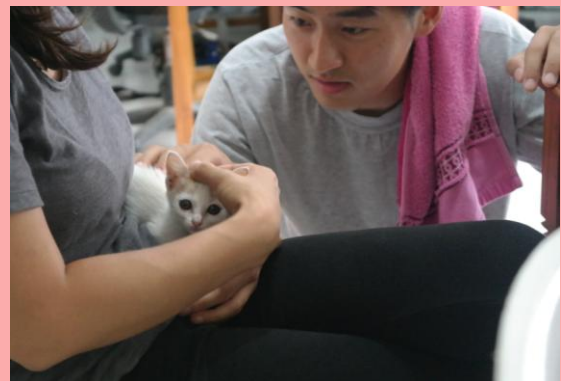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이름: 만두(0살)

- 아이무뎀 숙소내 모든 이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음.
- Nakar-Teen (장난꾸러기)
- 장래희망: 아기호랑이
- 주 서식지 : 책장 2층
- 주의사항: 목욕하면 못생겨짐.





Atti Klasse Komesa!! (시작)



<아피클라쎬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유치부	미술	음악	미술	음악	스페셜 액티비티
초등부	영어	음악	영어	음악	
성인반	한국어	미디어	한국어	미디어	X

1. 수업을 하며 아이들의 연령대가 달라 수업을 진행하기가 힘들었다는 전 기수들의 피드백을 토대로 나이에 따라 **분반수업**을 진행했어요.

2. 수요가 많았던 **영어교실**을 신설했어요.

이번 아피클라쎬는 뭐가 바꿨나요?!

3. 라디오DJ시코가 진행하는 **미디어클라쎬**를 신설했어요.



<Inglés Klasse ho Carlos>

(까를로스와 함께 하는 영어교실)



2014 하반기 아띠 클라세,
최다 시수, 최다 수강생, 끊임
없는 앵콜수업 요청! 요새 테라
산타에서 가장 핫하다는 까를
로스의 영어교실☺ 선생님이
마음에 든 것일까 호통수업이
통한걸까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의 열정 탓일까...
오늘도 영어 수업은 흥한다!

Carlos' Comments

영어수업을 미리 생각해두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원해서 새로 생긴 수업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 학문으로서의 영어가 아닌 말하는 영어를 가르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 언어라는 것은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 약간의 다른 방식의 표현이라는 것. 영어라는 것이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며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는 수업이 내가 생각하는 바이다.

<Flauta Klasse ho Berta>

(베르따와 함께 하는 리코더교실)



화, 목 오전 Labarik-Boot
(약 10세~14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리코더 교실!

이 달의 곡은 ☺☺

“할아버지의 넓은 시계”

베르따가 기본 운지법을 잡아
주었고 현재 아픈 베르따를
대신해 까를로스가 수업을 맡
아주고 있다.

Berta's Comments

리코더가 몇 개 없어서 정예 멤버로 진행하는 labarik boot(큰 아이들)의 음악 수업. 리코더를 잡기에 손이 작아서 잘 붙지도 못하는 친구들이 열심히 고군분투하여 결국엔 연주를 하는 것을 보며 기쁜 마음이 들었다. 아이들과 합주를 해보고 싶었는데, 건강 상의 문제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게 너무 아쉽고, 내가 아픈 동안 내 자리를 대신해 수업을 대신해 준 정진오빠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Carlos obrigada barak!

<Media Klasse ho Francisco>

(Dj시코와 함께 하는 라디오스타)

라디오 제작 실습을 위주로 한 미디어 클라쎄! MC, Producer, Writer로 역할을 나누고 인터뷰 등의 실습을 통해 수업이 진행된다. 미디어 클라쎄 역시 학생들에게 반응이 뜨거워 시수가 늘어났는데...! 테라산타 마을에도 시코에게도 “도전”이 된 미디어 클라쎄! 앞으로도 도전은 계속 된다!



Sico's Comments

Media Klasse hanesan Dezafiu!

‘같이 라디오 만들면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클라쎄를 기획하는 시점에 닿으니 일이 되고 말았다. 새로이 시작하는 클라쎄인데다 한국에서 방송을 해왔다 한들, 이 곳에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는지 부담감이 커졌다. 그렇게 완성된 계획안의 느낌은 어떨까. ‘내가 했으니, 너희도 하면 좋겠다’ 결국 한국 간사님께 혼났다. 돌아보니 미디어 클라쎄를 상상했던 초심(初心)과는 확연히 달랐다. 첫 계획안이 통과되었다 한들 엄청난 부담감에 식코(Sicko)가 되었으리라.

미디어클라쎄의 모토는 ‘도전’ 이다. 클라쎄를 준비하는 내게도, 미디어클라쎄에 참여하는 이들도 마찬가지다. 가급적 (때똥어를 못하는 탓도 크지만) 참여하는 이들이 주도하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말긴다. 대본도 녹음기 조작도, 아나운싱도 직접. 다 알아듣고 조언을 할 수 없는 것이 아쉽지만 함께 만든 프로그램을 듣고 서로 웃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 깊은 곳에서 감동이인다. ‘진심’ 이 담겨 있기 때문 아닐는지. 전하고 싶은 이야기와 들려주고 싶은 누군가가 있어 미디어 클라쎄에 찾아온다는 이들. 그들에게서 진짜 ‘미디어’ 를 배운다.

<Korean Klasse ho Mingas>

(밍가스와 함께 하는 한국어교실)

월, 수 오후에 진행되는 한국어교실!
현재 한국에는 동티모르인이 약 3천 명 정도 들어와있다. 고용허가제로 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동티모르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국어가 꽤 핫한 언어로 통하고 있다. 아직은 “안녕하세요”를 배우는 단계이지만 한글을 보고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수업의 목표이다.



Mingas's Comments

한국어교실을 맡겠다고 먼저 나섰을때, 이전 기수의 활동 모습과 동티모르에 대한 사전배경지식으로 한국어수업에 대해 한껏 고무되어있었다. 항상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티모르답게 한국어 공부 체계적으로 필요한 친구들보다는 흥미위주로 찾아온 어린 친구들이 많았고 수업을 준비함에 있어 혼란이 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한국어수업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수업을 준비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찾아와주는 실정...TT 아직 한국어교실을 계속할 것인가는 의논 중에 있지만 1명이 오든 2명이 오든 함께 공부하는 순간만큼은 너무 재밌고 뿌듯하다. 찾아와주는 친구들에게 항상 고마워서 몰래 부락을 챙겨주기도 했다(^^). 편애는 어쩔수 없나봐~

부록 2

덜리바보도 공부하게 하는 아.띠.클.라.씨...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Especial Atividade>

(매주 금요일은 스페셜 액티비티 데이!)

매주 금요일은 아띠가 모두 함께 준비하고 진행하는 **특별활동** 시간이다. 10월엔 END Poverty Campaign과 휴일이 끼어서 총 2번의 특별활동 시간을 가졌다. 첫 주는 <겨울왕국(Frozen)>의 자막을 간단하게나마 떼뚫어로 번역하고 떼뚫어 줄거리를 미리 알려준 후 함께 영화를 시청하였고, 셋째 주는 **과학수업**으로 공기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공기인형만들기 수업을 진행하였다. 작은 활동이라도 항상 즐겁고 신나게 참여해주는 아이들의 모습은 늘 아띠들을 힘나게 한다.



<Arte & Muzika Klasse ho Labarik Kiik>

(대훈돈..! 광란..! 아수라장..!
아띠가 가장 사랑하는 테라산타 꼬마악동들과의 시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arte klasse!



.....

딜리콤 아피클라쎬에
dansa(댄스)코실이 불가한 이유





10월의 생활상





아이들의 가톨릭 미사 참석

동티모르는 국민의 98%가 가톨릭 신자이다. 동티모르의 무덤가엔 모두 십자가들이 꽂혀 있고 집집마다 작은 기도 제단이 마련되어 있다. 이 곳의 크고 작은 명절이나 휴일은 가톨릭 달력에 따른 것이 많다. 동남아시아 문화권 안에선 다소 특이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 곳에서 마을 주민이나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린 한결같이 종교가 가톨릭이냐는 질문을 받곤 한다. 종교가 없다는 것(무교)을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는 동티모르 친구들...

아이들은 장난치다 화가 나면 Maromak(신)이 널 미워할거라며 투정하고 불량배 같은 겉모습의 청년들도 어울리지 않게 묵주목걸이를 하고 다닌다.

동티모르에서 종교는 생활이며
그래서 가톨릭은 이들 문화를 이해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특징 중 하나인 것이다.

**Domingu(일요일) 미사시간이면
자신이 가진 가장 예쁘고 화려한 옷을
깨끗이 차려 입은 모습으로
성당에 모이는 동티모르 사람들...**

Peace Coffee 식구들~!



엘시아



다빋



아나



도라



동티모르 최초의 공정무역 카페 “Peace Coffee”



대학가 근처에 위치한 피스커피 전경~!



지금은 End-poverty 캠페인 회의중!



이랬던 Peace coffee가!



이렇게 리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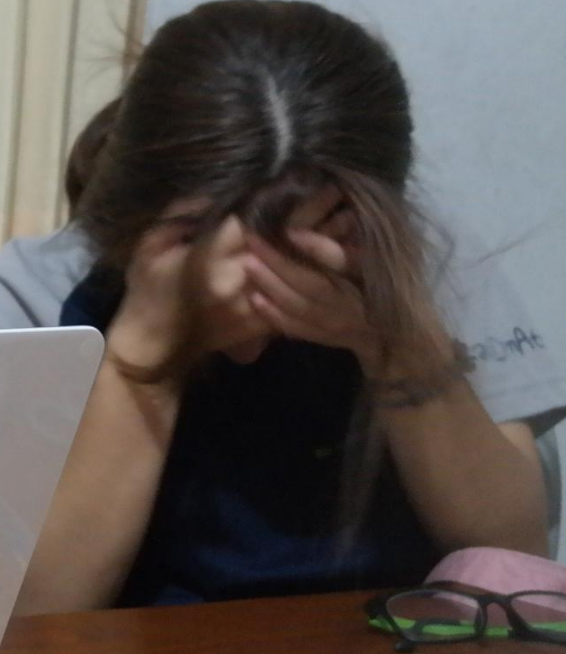
동티모르 최초의 공정무역 카페 "Peace Coffee"



티모르 현지인들이 주인인 문화공간!!!



임이진 작가님과 찰칵!



딜리팀의 10월의 고민



아띠클라씨: 이번 10월의 고민에는 '아띠클라씨'에 관한 고민이 가장 컸던 것 같다.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많았다. 수업 시간에 말썹을 일으키는 아이들도 있고, 물건을 가져가고 싶어 우는 아이들도 있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아띠클라씨에 오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서 우리들의 고민은 많아졌다. 아이들이 버릇없게 굴거나 다른 친구를 때리면 화를 내야 하는가, 마냥 받아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나눔을 통해 자기만의 아이들 다루는 노하우에 대해 공유하기도 하고, 아띠클라씨의 목표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보며 우리의 행동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본다.

건강: 한 달 간의 긴장이 풀려서인지, 이번 10월에 딜리팀에는 아픈 사람이 많았다. 베르타의 감기가 밉가스에게 옮겨갔고, 까를로스도 천식으로 고생을 했다. 마지막까지 아프지 않아서 '승자'라고 웃음짓던 시코는 감기와 체한 것으로 병원에 가야했다. 거기에 베르타의 피부병까지. 간사님들에게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을 얻은 12기 딜리팀. 건강하자. La bele moras. (아프면 안돼)

"Berta seidak diak?"

(베르따 건강상태는 좀 나아졌어?)

시코 : 요새 테라산타에는 베르따 모라스 판바 라 하리스라는 괴소문이 퍼지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죠???

까를로스 : 오늘도 카를로는 말한다. "베르따 모라스 판바 라 하리스"
베르따가 안 씻었기 때문에 많이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시코 : 아~ 그렇군요!!! 동네청년들이 너도나도 저 말을 하고 다녀서 무척 궁금했는데요, 그래서 베르따씨는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베르따 : 네, 저는 다 나았습니다. 저는 이제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씻지 않아서 아픈 것이 아닙니다! ㅋㅋ 악성 루머를 퍼트리고 다닌 까를로스 나빠요.(복수할거야)

밍가스 : 하루에도 몇 번 테라산타 사람들이 "Berta seidak diak?"라고 물어와요. 베르따는 센터에 오면 맨날 영유아 보러 숨어있었는데도!! 베르따의 빈 자리는 매우 크게 느껴진 시월이었습니다...ㅏㅏ 빨리 베르따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돌아와요 베르따!

개인 에세이

개기월식이었다.
 곧 보름이 다와가는데
 달은 초생달마냥 빙긋이 웃고 있었다.

피젯네 마당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쨍그당쨍그당 쇠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이윽고 그 쇠소리는 테라산타 온 마을을 뒤덮었다.

피젯의 아마*는 달을 가리키며 Timorese Coltura**라고 하셨다.
 달이 조느라 달빛이 자꾸만 어두워지니
 행여 떨어지지 말라고(labele monu) 쇠기둥 따위를 돌로 쳐
 달을 깨우는 소리였던 것이다.

그 소리가 영롱한게 꽤나 맘에 들어 운동장으로 나왔다.
 13살 소녀 아루시랑 같이 쇠전봇대를 돌로 마구 쳐대니
 동네청년 안끼가 와서 Labarik bulak***이라고 혼을 냈다.
 사실 나도 귀가 멍해오긴 했지만
 아이들이나 하는 유치한 장난이든 뭐든 뭐 어떤가.

3년이면 또 볼 수 있는 개기월식이겠지만
 그 날 밤, 달이 잠들지 말라고 깨우려던 그 쇠소리는
 내 인생에 두 번 없을 낭만이였다.

* 아마(amma) : 어머니 / ** Coltura : 문화(culture), 전통 / *** Labarik bulak : 어린애들 장난

<밍가스' S Essay>

별 일 없이 산다.

티모르 생활 2달째,
나는 별 일 없이 살고 있다.

물론 시월은 우리 막내(?) 베르따가 크게 아팠기에 걱정도 많았고 새 식구 만두(고양이)가 생겨 즐거움도 많았다. 아띠클라 세도 시작했고 마을청년들과 End-Poverty campaign도 했다. 그치만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이곳 '델리에서의 나'는 큰 흔들림 없이 무탈하게 지내고 있다.

개인적인 면에서나 활동 면에서나 라온아띠는 "흔들림"이라는 말이 아주 잘 어울리는, 그리고 부담없이 흔들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다. 국내훈련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익숙함에 질문을 던지는 연습을 하며 아시아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훈련을 하는 중이다. 너무나 많았던 내 안의 편견들을 깨고, 너무나 익숙했던 우리의 이분법적 세계관에 의문을 제기하는 행위는 다분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일인 것 같다. 이곳에서의 행동, 사고, 관계, 매 순간순간들이 동재로 훈련이니까 일상은 혼란스러워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덜 방황하는 것은 좋은 동반자들이 곁에 있어서이다.

국내훈련 때 나는 우리 팀원들과 이토록 친해질 줄 몰랐다.

김일주 감사님께서 「지란지교를 꿈꾸며」라는 글을 건네셨을 때, 나는 이 친구들과 지란지교가 되긴 결코 힘들거란 생각을 했다. 그만큼 우린 달랐다. 아직 3달 쯤이니 나중에 돌이켜보면 "야 그때 안 친했어 우리~"라고 웃을지 몰라도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친구들이 이전과 다른 소중한 사람이 된 것은 분명하다.

우린 서로 많이 편해졌고 때론 난독(?)해졌고 그만큼 서로 많이 알아가고 있다. 아직 "친절한 델리팀"이라는 불편한 타이틀을 내뱉긴 무리지만 또 그만큼 서로가 최소한의 배려와 존중을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초상의 팀워크가 틀림없으리라. 이들 덕에 난 지치다가도 힘나고 처지다가도 신나고 또 달리다가도 함께 걸게 된다.

또 다른 나의 나침반은 이곳의 한국 간사님들이다.

한국인 간사님과 함께 산다는 점은 동티모르팀 만의 유일한 특징이다.

사실 이 점이 가장 걱정되었던 부분 중 하나였다. 우리가 너무 쉽게 의존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서 많은 걸 놓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덜 고생하는 것이 때론 아쉬움도 하다. 그러나 분명한건 간사님들 덕택에 평가 받기보단 격려 받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만은 피해, 우리가 덜 방황하고 덜 돌아서가고 있다는 것이다.

좋은 멘토님들을 매끼 식사에서 마주한다는 것은 분명 멋진 일이다. 경험한 사람에게서 직접 듣는 조언은 책에서 본 글귀보다 질게 다가온다. 그 사람의 표정, 눈빛, 아우라, 그와 함께 있는 느낌 등에서 큰 감명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티모르에 온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한국인이 있어서, 도와주실 분이 계시어서가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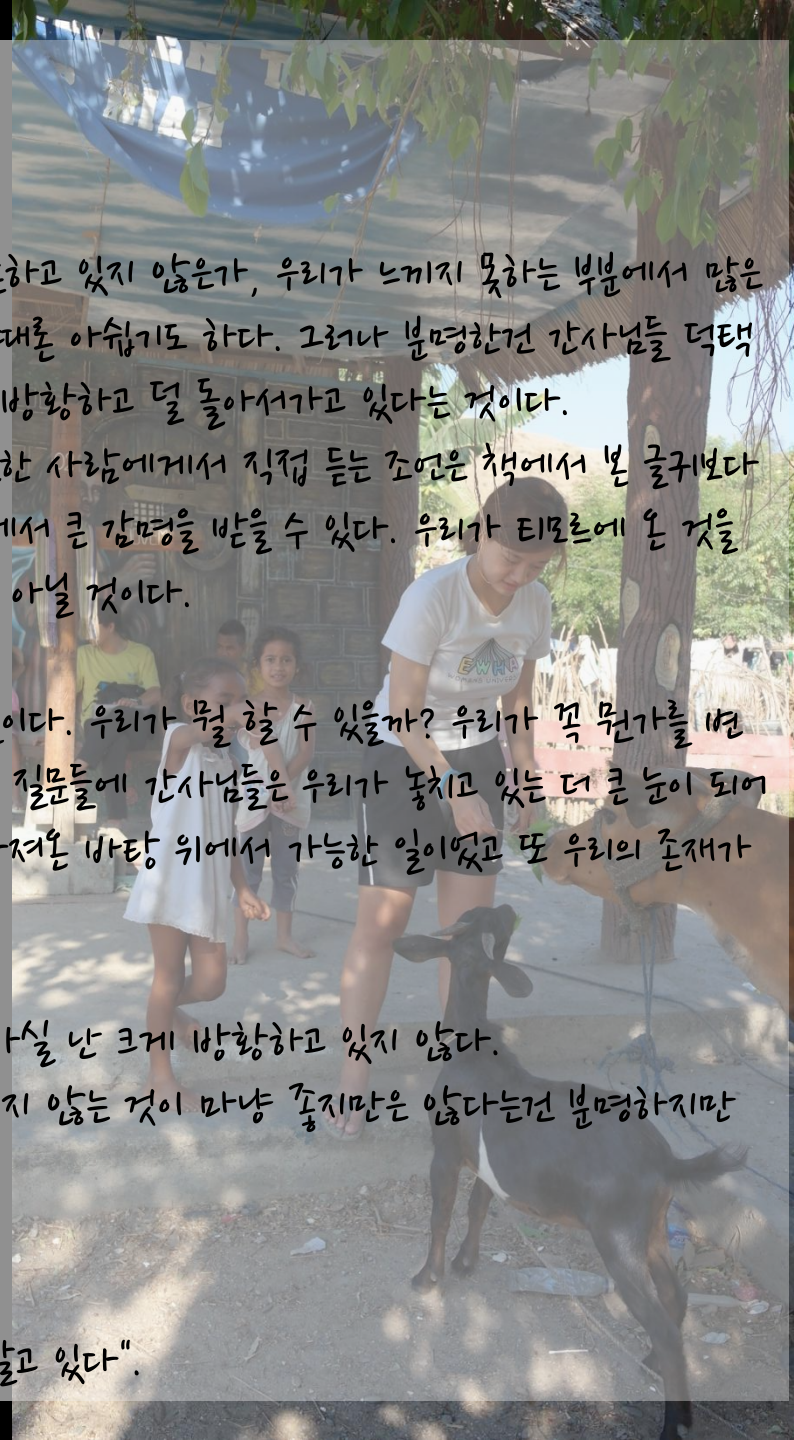
5개월이란 너무나 짧은 시간이기엔 뭔가를 시도하는 것은 늘 조심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꼭 뭔가를 변화시키고 누군가를 도와야만 할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뭘까? 이런 질문들에 간사님들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큰 눈이 되어 주신다. 우리가 별 탈 없이 적응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이전 기수들이 다져온 바탕 위에서 가능한 일이었고 또 우리의 존재가 다음 기수, 또 다음 사회를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기수의 아피 동생은 메일로 방황해도 괜찮아라는 글을 보내왔지만 사실 난 크게 방황하고 있지 않다.

내가 너무 고뇌하지 않는 것이 불안할 정도로 난 잘 적응하고 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마냥 좋지만은 않다는건 분명하지만 말이다.

산다는 것은 별 일이 아니다.

다르면서도 같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곳 동티모르에서 나는 두 달째, "살고 있다".





<베르타's ESSAY>

#1. 소중한 것들

10월은 내가 항상 당연시 여기던 것들, 잊고 있던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해준 달이었다.

아띠클라씨가 시작한 다음 날부터 아프기 시작했고, 그 다음날부터 온몸에 고름이 나기 시작했다. 피부상황이 안 좋아져서 피부가 진정될 때까지 집에서 쉬게 되었다. 피부가 낫지 않으면 어쩌하나, 더 심해지면 한국으로 가야 하는 건 아녀가 하는 걱정이 들었다. 고름이 터지고, 피부가 진정되기까진 괴박한 달이 걸렸다. 나에게 소중한 시간인데, 이렇게 아파버리다니... 속상한 마음이 들었다.

아무 생각 없이 타던 미끄롤렛의 광광 울리는 음악소리가 그리웠고, 센터의 아이들과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었다. 매일 팀원들이 찍어온 아이들과 청년들 사진을 보며 '센터아들이'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우와! 배아티 오늘 진짜 예뻐다!", "아델리 너무 귀엽다. 가서 안아주고 싶어. ㅠ ㅠ"하며 센터를 그리워했다. 센터에 갈 수 없고 사진으로만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티모르인가 한국인가 헷갈리기도 했다. 문득 '나중에 한국에 가면 딱 이런 느낌이 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몸 상태가 괜찮아 지고 내일이면 센터에 가게 되는데, 한국으로 돌아가서 느낄 수도 있었던 감정을 티모르에서 먼저 느끼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만약 한국에 가서 '아, 그 때 힘들다고 자는 척 하지 말걸. 애들이 너무 많다고 제시네 집으로 도
망가지 말걸.'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미 끝나버리고, 되돌릴 수 없을 일기에 속상했을 텐데, 지금 이 시점이 '이제부터는 더 잘해
야지.'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다. 더 이상 아프지 않는 것, 내가 지금 이 순간 티모르에 있다는
것, 센터에 있는 아이들과 친구들, 간사님과 팀원들. 익숙함에 빠져서 이 '소중한 것들을' 잊지는 말자,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을 한다. 드디어 내일 센터에 간다. 가슴이 쿵쿵쿵쿵 뛰고 설렌다. 내일 센터에 가면 아이들을 숨도 못 쉴 만큼 꼭 안아줄거
다. 티모르에서의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다.'

#2. 물든다는 것은

여수에서 국내훈련을 할 때, 성한 오빠가 즐겨 듣던 '꿈과 음악사이에'라는 라디오를 다같이 들은 적이 있다. 조금 듣다가, '그냥 노래만 듣자.'며 라디오를 껐었는데, 이곳에 와서 가끔씩 오빠가 그 라디오를 들을 때 오며 가며 옆에서 조금씩 듣게 됐다. 어느 날 이 라디오를 아예 처음부터 다 들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라디오를 듣는 걸 안 좋아하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게 스스로도 신기했다. 새벽에 오빠 MP3를 빌려와 라디오를 들었는데, 다양한 사람들의 일상 이야기와 노래를 듣고 있자니, 마음도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졌다. '아, 이래서 시코오빠가 매일 저녁마다 맥주를 마시면서 라디오를 듣는구나!'

"오빠는 왜 맨날 이어폰 끼고 맥주 마셔? 우리랑 지내는 게 힘들어? 우리랑 얘기하기 싫어?" 하고 장난을 치며 오빠를 당황 시키기도 했는데, 이제서야 오빠가 저녁마다 맥주를 마시며 라디오를 듣는 게 이해가 됐다. 샤워를 할 때면 라디오 좀 듣겠다며 오빠 MP3를 빌려가는 나를 보며 이전 내가 오빠를 이해하게 되었다기 보다는 내가 오빠를 알아가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경리가 우리 팀에게 준 편지에 심가연 시인이 쓰신 '물든다는 것은'이라는 시가 적혀있었다. 멀리에 도착해서 오빠들 방이랑 언니랑 내가 쓰는 방 사이의 벽에 그 편지를 붙여 놔줬는데, 시에 쓰여진 것처럼 바다가 노을을 껴안는 것처럼, 노을이 바다를 믿는 것처럼 차츰 차츰 우리가 서로에게 물들어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English
Numero

one	dozen
two	twelve
three	thirteen
four	fourteen
five	fifteen
six	sixteen
seven	seventeen

<CARLOS(정진)'S ESSAY>

일주일만 더 있으면 5개월의 절반이 지나가게 된다. 중간평가도 코앞으로 다가와 있다는게 새삼 새롭다. 아피클라세도 어느덧 적당한 적응이 되어 시작 초반의 부담보다는 더욱 즐기고 있는 듯 하고 영어와 띠페뎀이라는 외국어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더 쉽게,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욕심이 많아졌다. 언어에 대한 욕심과 건강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 이번달 이어서 요즘은 4일 정도 거리인 센터를 걸어다니고 있다. 걸어다니는 덕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오히려 띠페뎀이 공부하고 여러가지 생각을 하기에 적당한 나만의 자투리 시간이 소소한 재미가 있다.

'거리만 아피가 아닌 행동하는 아피가 되자'라는 생각을 많이했다. 대단한 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조금 불편해도 큰일 나지 않기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 보자 라는 생각에 이르렀고 조금씩 실천하고 있는 중이다. 역시 큰일 안 난다. 몸도 마음도 더 가벼웠다.

아피 이후, 직접적이고 큰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과 다르게 스쳐 지나갈 수 있었던 것들에서도 한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은은하게 풀어 서서히 주변에 풍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은은한 향이야 말로 우리를 서서히 아름답게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나혼자의 변화 보다는 우리 넷을 위한 변화를, 그 속에 내가 있고 함께 나누어가는 것이 더불어 간다는 것임을, 그리고 이곳 티모르와의 동거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다.

우리넷 그리고 아피들 모두 조금씩 자신만의 향을 잘 만들어가고 있다고 믿는다.

나뭇가지에 걸터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쓴다. 나도 모르게 비바른 걸음으로 이곳에 닿았다. 다소 두리췌다. 막상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 굳이 그렇게 빨리 걸었을까 싶었다. 인사도 나누고 풍경도 담으며 천천히 걸어와도 될 걸.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날이다. 시월의 첫 날, 서로의 목표를 나누며 별 말을 안했던 것 같은데 지난 회의록을 열어보니 시코의 시월 목표는 '즐겁게 살기' 였다. 한달 내내 즐겁게 살지는 않았을 테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은 날들이었구나. 문득 '그렇다면 즐겁게 사는 게 뭐야?' 라 자문해보지만 그것도 잘 모르겠다. 다만 많이 웃었고, 예쁜(물론 마음이) 사람들이 내 맘에 담겼기에 들뜬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닐는지. 지금 참 좋다.

시월의 마지막 날, 딜리 해변가에 앉아 - Sico



시코가 그려본 시월 마지막 날, 딜리 해변가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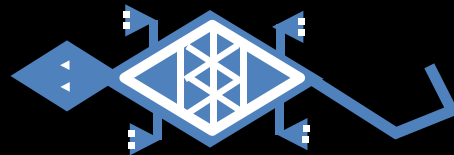
<Francisco(성한)'s Essay>

귀울 말에서 시월 초, 시코는 심란했다. 아띠클라씨가 앞당겨지며 때때로 수업이 줄어드는 것.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이 앞섰다. 특히 '라디오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면 재밌겠다'는 계획을 클라씨로 옮기려니 지난 날의 설렘은 어딜 갔는지. 머리만 지끈 거렸다. 결국 미디어클라씨 첫 계획은 Back! '왜 미디어 클라씨를 해야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지극히 개인적이었고 시코의 '일' 같은 느낌이 강했다는 평이었다. 이제사 지극히 개인적이었던 이유를 털어놓자면 내가 아띠클라씨에서 '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에 이 클라씨만이라도 해야한다는 절실함 혹은 라디오 프로그램을 함께 만드는 것이 언어를 잘 구사하지도 못하는 데다 이런 수업이 처음인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컸다. 이를 댄 초심(初心)을 떠올려야한다. 그래, 같이 웃고 떠들면서 만들던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거야! 좀 더 솔직해졌다. 미디어클라씨의 모토는 "도전!" 덧붙여 "솔직히 어렵다. 하지만 함께 해보자" 부담을 덜어내니 많은 이들의 응원이 더해졌고 클라씨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재밌게 기획할 수 있었다. 첫 계획대로 했다면 내가 클라씨가 부담이듯, 그들에게도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왔으리라. 아, 그렇다고 그 긴장이 다 날아갔으랴. 미디어클라씨 수업 전날 저녁부터 수업까지는 긴장상태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 대본을 쓰고, 녹음기 버튼을 누르고 말하는 모습을 볼 때면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함박웃음이 핀다. 매 수업을 새롭게 도전해야하는 터라 긴장감도 더하지만 그래서 더 기다리지는 클라씨라 참으로 흥미진진하다. 또 오늘은 누가, 어떤 이야기를 담아 들려줄지도.



아르떼 클라세도 비슷했다. 애초에 계획을 세워 간사님께 검사를 받았을 적에는 'Bele (할 수 있어)' 라 말
씀해주셨지만 막상 아이들과 맞닿은 첫 수업, 이 계획은 어렵다는 판단이 절로 들어 새로이 다듬을 수 밖에 없었
다. 앞서 언급한 캠페인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럼에도 새로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함
게이기에 가능했던 거다. 2014년 10월, 거 참 예상치 못한 도전들이 이어져 당혹스러웠다. 그러나 그 덕에 값진
배움을 얻었고 한배쯤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10월에 만난 또 함께한 이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보낸다. Obrigadu Barak! 😊



딜리 사진관









아빠티와 놀아주는 법 1



아빠티와 놀아주는 법 2



하아...
ㅠㅠ



완성샷!

언니, 이게
요새 아주 잘 나가는
신상이에요~~!!!



안 봐도 안...



오늘 장사
망했네...

아빠티와 놀아주는 법 3

부록 5



그 해 가을... Dili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 roro



10월의
피스터티모르는
누구?!



2 efran



*See mak
atu sai
Mister
Timor?!*

3 sasai



4 asi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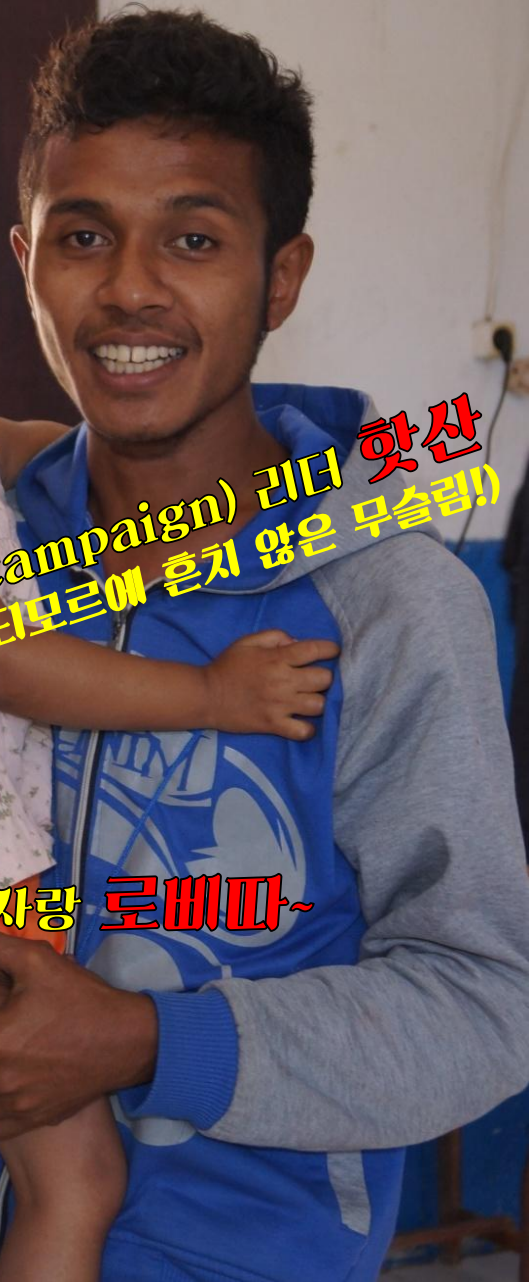


10월의 절친, 빠티와 아티스



내가 맨날 때려도
빠티 난 너뿐이야~

10월의 딜.친.소.



앞니 빠진 메탈리카 나토!
(13살 내 여동생도 'METAL' 팔찌!)

깜빠냐(campaign) 리더 핫산
(타모르에 흔치 않은 무슬림!)

왠지 모르게 챙겨주고 싶은 미끼아스..
(요새 호텔 공사장 아르바이트로 아파들에게
'앞잡이'라는 별명을 얻음)

밍가스의 의사랑 로비파~



10월의 감성변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

10월호 공포특집

여자방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

그 정체는...?



쥐



꼬리가 길고 색깔이 좀 까만 햄스
터라고 생각하면 슬이 너도 귀여
울거야~ 우리 이거 키우자!! 너~~
어무 귀엽다~~ 우리 쫘꼬미 일루
와방~~ 오늘 저녁은 모야~?!><

아... 정녕 이방이 제 방이 맞는
건가요. 저 쥐를 어떻게 하면 방
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요.ㅠㅠㅠㅠ 밍가스 언니는 저
쥐가 라따뚜이라고 생각하는 듯
해요. 멀리에서 쥐가 나오면 자기
가 다 잡아주겠다던 약속은 잊은
채 쥐를 예뻐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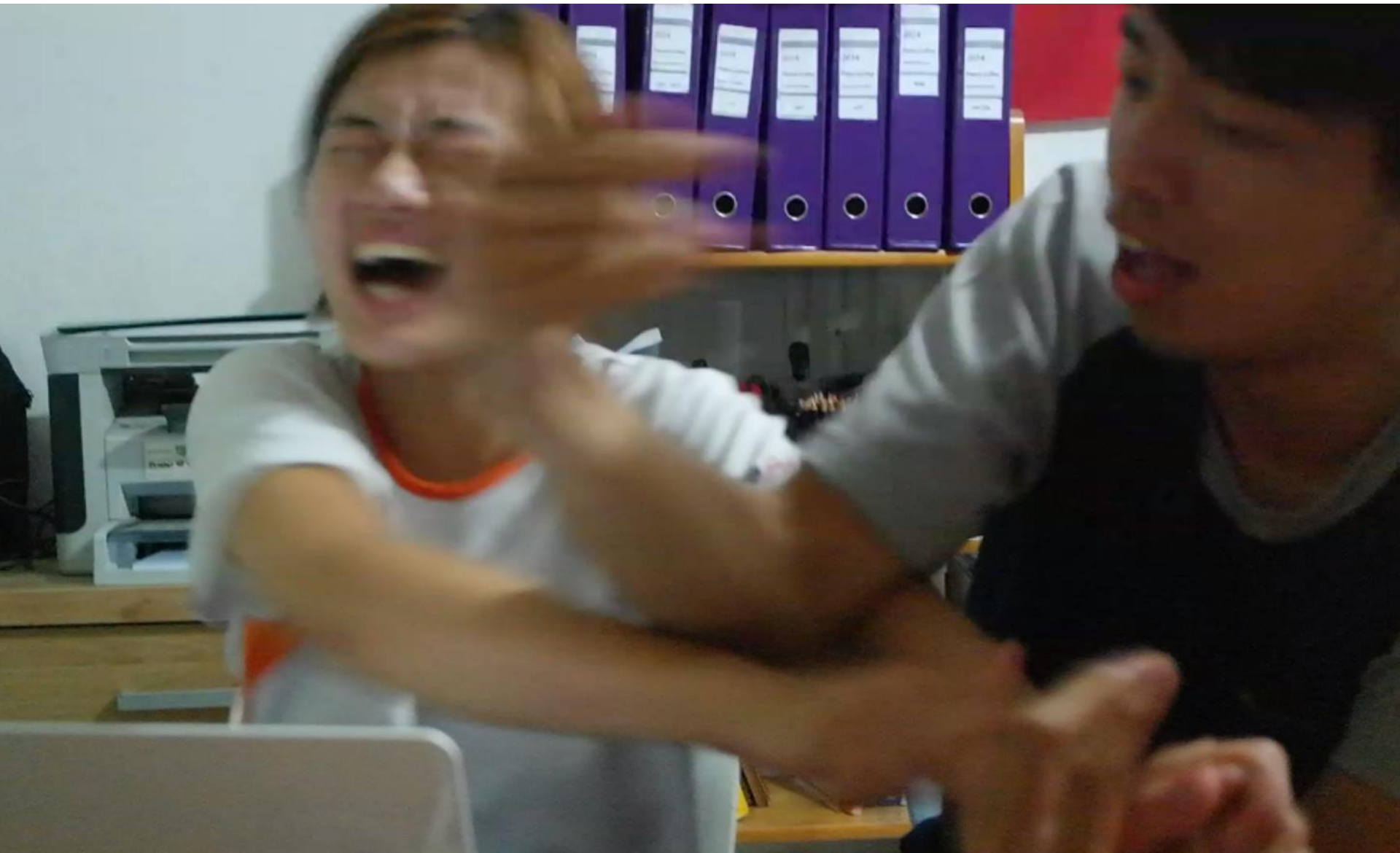




밍가스

패리기 1.

밍가스 패리기 2.



까불면.. 죽는다..

연기천재



☆다음호엔
까를로스 괴롭히기 특집이
있습니다... ➡ (예고편)



다음 달에 만나요~ 🐱

